

# 國學中心大學을 지향하는 安東大學

金 燁

(安東大 學長)

## 略史와 設立 背景

### 1) 略 史

安東大學은 1979년 1월 18일 大統領令 9288號로 4년제 國立 安東大學으로 인가되어 같은 해 3월 12일 歷史的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設立 이전의 상황을 개관해 보면 광복 2년 뒤인 1947년 7월 21일 안동사범학교가 설치되어 약 15년간 지속되다가 1962년 3월 9일 道立 安東農業初級大學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후 다시 1965년 3월 1일에는 安東教育大學으로 발전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교원 수급의 과다로 인해 1978년 3월 1일 다시 安東初級大學으로 개편되었다가 1979년 3월 12일에는 드디어 4년제 正規大學으로 승격하여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 2) 設立 背景

太白山脈에서 小白山脈이 分岐하는 慶尙道 北部地方은 지리적 조건과 문화적 영향으로 옛부터 外敵의 侵入이 비교적 적어 文化的 발전과 安定을 유지하여 文化의 전통이 쌓이고 民族文化의 母胎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작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할 중심 기관으로서의 大學이 존재하지 못하여 경상도 북부 지방 11개 市郡의 주민들은 그 기능을 수행할 4년제 大學 설치를 갈구하였다. 그러던 차 안동교육대학이 폐지되

자 이를 계기로 삼아 북부 지방의 중심지인 安東 지역 주민과 안동대학 전신이었던 각급 학교 동창생, 그리고 안동초급대학 교직원과 地域有志들이 한마음이 되어 安東大學 設립을 추진하고 정부 또한 人才 양성과 교육 百年大計를 위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마침내 1979년 3월 12일 4년제 國立 安東大學을 設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게 創立된 본 대학은 문화적 전통에 부응하는 國學大學으로의 발전과 한편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보편적 世界大學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양면의 艱難 課題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전자를 위해서는 漢文學科, 史學科, 民俗學科, 國語國文學科, 東洋哲學科 등의 학과를 설치하였고, 후자를 위하여는 自然系의 각종 학과와 社會系 및 餘他의 人文系 學科를 설치하여 발전과 翁비를 기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民俗學科는 韓國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일대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처음 있는 학과로 本校의 特性學科인 데 앞으로 적극적인 발전과 육성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 국가와 민족이 지속적 발전을 수행하자면 그들이 갖고 있는 傳統과 遺産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토대가 굳건하여야 하며 이러한 배경 없이 형성된 物質文明은 그 발전의 限界性을 갖게 마련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적 성장은 괄목할 상태인데, 여기에 발맞추어 精神文化의 측면에서도 발전을 거듭해야만 올바르게 균형 있는 성장



◀安東대는 현재 어느 대학보다도 國學中心大學의 성격을 잘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향하는 바에 걸맞는 학과의 증설 등으로 人文主義 중심 국학대학의 성격을 굳힐 예정이다.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대학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하에 國學의 발전과 保存이란 선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본교는 이상의 建學 目的을 구현하기 위해 上記한 관련 학과 이외에도 安東文化圈의 연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安東文化研究所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매년 「安東文化」란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大學 構內에 있는 易東書院의 효과적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이 지방에 산재한 典籍類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박물관도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각종 文化財와 民俗資料를 수집 보관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요람을 형성한 安東文化의 연구에 보탬을 주고 있다.

대학은 국가 발전의 중심체로서 기능하여야 하고 민족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 문화의 源流의 하나요, 退溪學을 중심한 儒敎文化의 溫床이기도 한 安東文化를 개발 연구하여 이를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文化的 전통으로 再定立하여 발전시킬 필요성과 시대적 요청이 있는 바, 本 大學은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行·財政的 지원과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 大學 現況과 發展 計劃

본 대학은 1979년 3월 12일 개교와 함께 漢

文學科, 史學科, 民俗學科, 經營學科, 貿易學科, 音樂科, 美術學科, 家政學科의 8개 학과로 출발하여 慶北 中·北部와 江原 南部 및 忠淸 北部 지역의 敎育과 文化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던 서 현재 인문계 國語國文學科, 漢文學科, 史學科, 民俗學科, 東洋哲學科의 5개 학과, 사회계 法學科, 行政學科, 經營學科, 貿易學科, 會計學科의 5개 학과, 자연계 物理學科, 化學科, 生物學科, 電算統計學科, 家政學科, 食品營養學科의 6개 학과, 사범계 國民倫理敎育科, 英語敎育科, 數學敎育科의 3개 학과, 예·체능계 音樂科, 美術學科, 體育學科의 3개 학과 등 총 22개 학과에 3,860명의 재적생을 갖고 있다.

敎授 수는 113명으로 敎授 확보율 76%이고, 施設은 754,956m<sup>2</sup>(23만 평) 부지에 강의실, 실험실습실 및 연구실 등 모두 504실에 37,626m<sup>2</sup>의 면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長期發展計劃(1981~1991)이 끝나는 1991년도에는 24,146m<sup>2</sup>의 시설이 더 늘어나게 되어 명실공히 綜合大學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현재 연차적으로 계획을 진행중에 있는 중요 내용을 組織, 敎育, 研究 및 施設面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적인 발전의 방향은 大學 본래의 연구 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학문간의 유기적 연구를 위한 기반 조성과 학문 연구의 세분화, 전문화 및 특성화에 주력하여 심오한 학문 연구에 기여함은 물론 地域社會와 국가의 발전에도움을 주고, 世界의 文化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

는 大學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며, 한편 현대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각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하여 교육의 내용을 개선·강화하며 大學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봉사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組織 계획은 현재 인문계 5개 학과, 사회계 5개 학과, 자연계 6개 학과, 사범계 3개 학과, 예·체능계 3개 학과 등 22개 학과에 도서관, 박물관, 신문사, 출판부, 방송실 등의 5개 부설 기관과 학생생활연구소, 새마을연구소, 안동문화연구소, 어학연구소, 전자계산소 등의 5개 부설연구소를 갖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증편을 하여 보다 다양한 학문 세계로 넓혀 나갈 것이다. 또한 퇴계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소, 國學연구소, 理念教育연구소, 지역개발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등을 신설하고 大學院 및 특수대학원(教育大學院)을 신설하여 학문 연구를 더욱 심화하고 산학협동의 연구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教育 및 研究計劃은 교육과정 운영의 합리화·효율화를 기하여 현실적이고 未來志向的 教育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교수 방법의 개선과 교육 자료 및 실험 실습 시설의 확충과 첨단 과학 기자재를 도입하여 연구와 교육의 현대화를 도모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의 자질 향상과 학생들의 어학 연수를 위하여 국내·외 연수와 교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우리 학교는 自由中國의 文化大學과 자매 결연을 체결하여 교수 학생의 연구 활동과 연수를 위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과 유럽의 名門大學과도 자매 결연을 계획하고 있다.

施設計劃은 기존 학과와 연구소의 시설을 확충하고, 理工系의 실험 실습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이미 IBRD 및 OECF 차관을 도입하고 있으며 교양학관, 이공학관, 예술학관, 체육관, 학생회관의 완공에 이어 사회학관을 착공하였는데, 앞으로 인문관, 교수 아파트 및 학생 기숙사를 포함해서 학생 복지 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할 것이며 연차적으로 캠퍼스의 綠化를 위하여 조경 산업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본교는 선술한 외국 대학과의 자매 결

연을 통한 학문 교류와 함께 이 고장의 退溪學을 중심한 儒敎文化와 민속적 전통 문화를 크게 개발 연구하여 世界文化에 기여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며, 여타의 인문·사회·자연의 모든 학문 분야도 괄목하게 발전시켜 세계 문화와 교류하는 명실공히 世界 속의 大學으로 발전하도록 계획하고 노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교육이 국가 전체 교육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 대학으로서의 安東大學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며 國學中心大學으로 특성화하여 地域과 民族文化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인류 문화의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 國學中心大學으로서의 特性化

학문 활동을 위한 大學의 組織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分科學間 중심의 學科 조직과 研究主題 중심의 研究所 조직이 그것이다. 安東大學의 조직도 國學大學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國學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학과의 구성을 보면 民俗學科, 國語國文學科, 史學科, 漢文學科, 東洋哲學科가 있어 전국 어느 대학보다 國學 分野의 학과가 고르게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國語國文學科나 史學科는 일반적으로 널리 개설되어 있는 학과이나 漢文學科와 東洋哲學科는 흔하지 않은 국학 분야의 학과이다. 전국을 통틀어 보아도 본 대학 외에 한 두 대학에만 개설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民俗學科의 설치이다.

그 동안 國學系의 숙원 사업이었던 民俗學科가 安東大學 개교와 함께 설치됨으로써 민간 학문으로 또는 다른 분과 학문의 보조 학문으로 다루어져 오던 民俗學이 대학의 정규 학과로서 본격적인 학문의 제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로써 民俗學科는 한국 유일의 학과이자 동양 최초의 민속학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國語學, 國文學, 韓國哲學, 國史學, 漢文學 등과 함께 民族文化의 주체적인 연구와 계승 및 발전적인 再創造를 위한 국학의 구심점을 이루면서 이들 분과 학문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문간의 조화와 균형을 잡

아 주는 구실을 하게 되었다. 民俗學科의 활동으로는 本大學이 개교된 지 불과 4개월만인 1979년 6월에 '韓國民俗學의 概念과 課題'라는 주제로 전국 각 대학의 민속학 전공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제1차 韓國民俗學 學術會議'를 열어 우리 국학계가 기대하고 전망하는 韓國民俗學의 方向을 점검하는 학술 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만 4년이라는 대학의 한 주기를 보내면서 1984년 10월에 '제2차 韓國民俗學 學術會議'를 열고 '韓國民俗學의 研究方法'이라는 주제로 같은 방식의 학술 모임을 가졌다. 이 두 학술 행사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을 묶어서 「韓國民俗學의 課題와 方法」이라는 論著를 간행하여 민속학계에 크게 공헌한 바 있다.

이에 본 대학에서는 民俗學科를 중점 육성 학과로 지정하여 대학 행정을 떠나가고 있으며 文敎部에서도 이를 인정, 地方 거점 대학 특성학과로 지정하여 민속학의 학문 활동에 적극 지원할 방침으로 있다. 본 대학에서 수립한 民俗學科 육성 중장기 계획을 보면 民俗文化研究所 및 民俗資料館의 설치 운영이 있고, 민속학 관계 外 書 翻譯事業, 初·中·高 敎科書에 나타난 전통문화 영역의 분석, 민속학과 敎科課程의 연구, 民俗學 교재 편찬, 民俗學 辭典 編纂, 傳統文化의 계승과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국학대학으로서 研究所 조직을 보면 安東文化研究所가 유일하게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安東文化圈을 중심으로 한 傳統文化의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안동문화연구소는 그 동안 地域文化를 주요 대상으로 국학 연구에 일정한 성과를 올려 왔다. 6회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 발표와 개교 당시부터 발간한 研究所 논문집이 지난해까지 7집이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기획 연구로는 臨河댐 수몰 지역의 지표 조사를 비롯해서 이 고장의 地方誌인 「永嘉誌」의 기초 연구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지방 대학의 예산 규모상 연구소에 충분한 예산과 연구비를 지급할 수가 없어서 개별적인 연구에 의한 연구발표회가 연간 한두 차례 있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연구된 논문들을 모아 1년에 한 차례씩 論文集을 발간하는 정도이다. 安東文化研究所가 국학대학을 표방하는 본 대학의 대표적인 연구소라

는 학내 권위를 떠나서도 안동문화가 가지는 민족문화의 典型性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안동문화에 대한 연구열이 높고 또 그 연구 성과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며 연구소 논문집의 우수성을 요청하는 大學 및 研究機關이 범 세계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영세한 地方大學의 예산이 아니라 政府 次元의 지원이 아쉽다고 하겠다. 이러한 학문적 관심을 충족시키고 연구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과 학문의 벽을 허물고 共同主題를 學際的으로 연구하는 기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시급한 지원은 충분한 研究費의 확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소의 지위를 격상시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安東文化研究所가 법정 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문화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학 전반을 주제별로 다루기 위해서는 民俗研究所, 藝術文化研究所, 國學分野의 각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國學研究所 등의 설치도 검토할 만하나, 현재의 예산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장차의 발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본 대학의 創學 理念과 지방 대학으로서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國學大學으로서의 特性化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과 조직은 현재 전국 어느 대학보다도 국학 중심 대학의 성격을 잘 갖추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考古美術學科, 韓國哲學科, 國史學科, 宗教學科 등이 계속 증설된다면, 人文主義 중심 국학대학의 성격을 굳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國學大學에 걸맞는 博物館의 확충과 법정 기관 승격이 또한 시급하다. 이것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므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리고 박물관내에 民俗資料館의 설치 운영을 별도로 기획해 나갈 필요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학 분야 관련 학과 및 관련 연구소와 기관들이 인접 공간에 더불어 있으면 학문적 교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大學이 발전하면 따로 國學館이라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 大學의 교세 확장과 지역 주민들의 학문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종합대학으로의 승

격과 大學院 설치가 불가피한데, 이때 국학 중심 대학의 특성화와 관련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大學院의 경우는 特殊 國學大學院도 개설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려는 정규 학부 출신 외에 國學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의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터놓을 필요가 있겠다.

國學研究所, 國學館, 國學大學, 國學大學院 등이 구성된다고 하여 國學中心大學의 이념이 단번에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연구를 담당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구성과 학문적 열의가 더 중요한 요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이나 제도적 조직은 연구자의 연구 능력

을 극대화시키는 수단과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역량 있는 國學者의 초빙과 연구 분위기의 조성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수한 學生들이 國學 研究에 신념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국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질 있는 학생들을 위한 獎學 對策이 물론 마련되어야 한다. 國學獎學金制度를 마련하여 이들 학생들에게는 특별 전형을 실시하고 장학 혜택을 주며 大學院에서 계속 學問活動을 할 수 있도록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방안과 구상은 대학의 교세가 확충되고 교수의 연구 환경이 조성되고 자율과 개성이 발휘될 때 가능할 것이다. \*